

돈이란 상상

손봉호 (대표주관)



이 세상에 “검은 것을 희게, 추한 것을 아름답게, 잘못을 옳은 것으로, 천한 것을 고상하게, 늙은이를 젊은 이로, 비겁한 자를 용사로”로 만드는 것이 있다. 셰익스피어가 그의 희곡 ‘아테네의 타이몬’ (Timon of Athens)에서 타이몬의 입을 빌려 표현한 관찰이고, 마르크스가 그의 『국가경제와 철학』에서 긍정적으로 인용한 구절이다. 도무지 그런 무소불위의 능력을 가진 것이 무엇인가? 그게 바로 돈이라 했다. 이미 셰익스피어 시대(17세기)와 마르크스 시대(19세기)에 돈이 그만한 힘을 행사했다면 오늘날엔 그보다 수십 배나 더 큰 힘을 행사할 것이다. 그때는 돈이 있어도 살 수 없었던 것이 오늘날엔 살 수 있

게 되었고(건강, 미모, BMW), 그때는 돈 버는 수단이 아니었던 것이 오늘은 좋은 수단이 되었으며(야구, 얼굴) 과거에는 돈이 없어도 가능했던 것이 지금은 돈이 없으면 어렵게 되었고(대통령, 학위), 과거에는 돈이 있어도 어려웠던 것이 지금은 돈이 있으면 쉬워졌다(신분상승, 총회장). 미국이고 한국이고 훌륭한 대통령은 경제를 살려야 하고, 대학에서는 돈 버는데 도움이 되어야 인기학과다. 하늘나라를 지배하는 것은 의와 사랑이고, 오늘날 땅의 나라를 지배하는 것은 돈과 쾌락이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힘이 있어야 의지하게 된다. 오늘날에는 돈보다 더 강한 것이 없고 따라서 사람들은 돈을 의지하게 되었다. 이미 예수님 시대에도 돈이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 했던 것 같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마 6:24) 하였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하신 것을 보면 돈이 우상이 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하셨다. 그때 돈이 우상이 될 수 있었다면 오늘날에는 그 가능성이 훨씬 더 커졌다. 문화가 세속화 되어 초월적 세계와 가치는 무시되고 육체중심의 물질주의가 지배적인 위치에 자리 잡게 되었다.

마치 칼이 그 자체로 나쁜 것이 아닌 것처럼 돈도 그 자체가 악하거나 터럽지 않다고 말은 할 수 있다.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기 위하여 쓰는 돈은 매우 귀하고 아름답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에게 욕망이란 것이 있기 때문에 돈이 바로 쓰일 가능성보다는 잘못 쓰일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 돈에 대한 로크(John Locke)의 이론에 따르면 인간의 욕심이 아무리 크더라도 돈이 없었더라면 부를 무한히 축적할 가능성이 없었고 따라서 빈부격차가 이렇게 커지지 않았을 것이며, 그 때문에 생겨난 온갖 문제들로 사회가 이렇게 갈등으로 가득차지 않았을 것이다. 바울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딤후 6:10)라 했지만 이제는 ‘돈 그 자체’가 일만 악의 뿌리가 되고 있다.

돈이 힘을 가지고 있고 그 힘은 점점 더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돈은 부패의 뿌리로 작용하고 있다. “모든 힘은 타락할 경향을 가지고 있다”(All power tends to corrupt)란 액턴의 경고에서 돈은 예외가 아닐 뿐 아니라 오히려 그 전형적인 예가 되고 있다. 가난한 교회보다 큰 교회에 사교가 많은 것도 큰 교회에 돈이 많아서 부패의 유혹이 더 크기 때문이다. 가난했다더라면 존경받을 분들이 돈이 많기 때문에 감옥에 앉아 있다.

성경에는 돈에 대한 경고가 매우 많고 돈이 많은 문제를 일으킨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가롯 유다는 은30냥에 예수님을 팔았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돈 때문에 거짓말하다가 죽었으며, 시몬은 돈으로 성령을 사려다 베드로로부터 혼쭐이 났다. 그리고 기독교 역사에서도 돈이 많은 문제를 제기하였다. 루터의 종교개혁은 돈을 받고 면죄부를 파는 것에 대한 항의에서 비롯되었고, 오늘날 한국 교회의 부패도 대부분 돈과 관계되어 일어난다. 특히 한국인의 전형적인 세계관이 차세중심적이고 국민들 상당수가 돈에 미쳐있는데 한국 기독교가 이런 세계관을 극복하기는커녕 오히려 그것에 깊이 함몰되어 있기 때문이다. 부자가 되는 것이 복 받는 것이고, 연보를 많이 해야 좋은 교인이며, 현금이 많이 건져야 성공한 교회로 인정받는 상황이다. 한국 교회와 교인들의 상당수는 실제로는 돈을 섬기면서도 스스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줄 착각하고 있다. 한국 교회가 섬기는 우상은 의심할 여지없이 돈이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마 6:24)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딤후 6:10)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성경적 신앙의 순수성을 회복하려면 돈의 위험을 직시하고 돈을 그 본래 위치로 돌려보내야 한다. 돈에 대한 태도가 바로 신앙의 순수성을 시험해 보는 시금석이다. 돈을 상대화하려면 종교개혁 때 성도들처럼 ‘세계내적 금욕’(Max Weber)을 실천해야 한다. 열심히 일해서 이익을 많이 내되, 철저히 절제하고 겸소하게 살면서 기본수요만 충족하고 나머지는 모두 가난한 사람들과 가난한 나라에 주어버릴 수 있어야 한다. 재물은 우리의 편의와 쾌락을 위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눅 12:42) 주라고 주신 것이다. 재물은 우리의 것이 아니고 다만 우리에게 맡겨진 것이므로 우리 자신의 사치와 쾌락에 쓰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범죄일 수밖에 없다.



손봉호 본지 대표주관.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맹회 이사장. 서울대에서 영문학을 전공하고 알스테르담자유대학교대학원에서 철학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한국외대, 서울대 교수를 거쳐 동덕여대 총장과 세종문화회관 이사장을 역임하였다. 서울대 명예교수, 고신대 석좌교수이며 나눔국민운동본부 대표로 섬기고 있다.